자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

이번주에 있을 공과를/ 교육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양심과 생각을 일깨워주시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을 올바로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 이제 곧 스승의 날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더욱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가운데 저희가 교사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숱한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직분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할수 있도록 진보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올바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님께만 모든걸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Vamos a empezar con la oración

Dios viviente, gracias.

Hoy, Después de acabar todos los programas

Estamos reuniendo en este lugar

Por la clase para la enseñanza de esta semana/

Te ruego que a través de la palabra /despiertes nuestra conciencia y pensamiento/

Y que tengamos el corazón del Señor

Y que nos cambies para que seamos preciosos trabajadores de Dios que que puedan testificar al Señor a través de nuestra vida.

En mayo, vendrá pronto el día de los maestros.

Sobre todo/ como maestro, como profesor, /ante nuestros estudiantes y ante Dios.

Podemos reflexionar más nosotros mismo cómo hemos vivido.

Con tu gracia infinita, hemos recibido el ministerio precioso, de ser maestros

Y a pesar de que ha habido muchos errores y fracasos hasta ahora.

Sin embargo, Gracias a Dios por ofrecer las gracias para que podamos encargar ese ministerio.

Ayúdanos a través de este ministerio / a crecer y avanzar nuestra vida cristiana(fe),

Ayúdanos a mostrarles correctamente a nuestros estudiantes que el Señor vive y trabaja a través de nosotros.

La palabra de hoy también la confiamos en el Señor.

En el nombre de Jesucristo que nos ama, hemos orado. Amen.

다같이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

1장 15절부터 15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16.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17.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18.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19.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21.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22.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오늘은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 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와있는 몇 가지 교훈을 잠깐 배우고자 합니다.

아기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태어나는, 보호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같이 읽었던 이 본문 1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Vamos a ver Éxodo capítulo 1.

Éxodo 1, capitulo 1 desde el 15 hasta el 22, vamos a leer juntos.

Empezamos.

**15. Y habló el rey de Egipto a las parteras de las hebreas, una de las cuales se llamaba Sifra, y otra Fúa, y les dijo:**

**16. Cuando asistáis a las hebreas en sus partos, y veáis el sexo, si es hijo, matadlo.**

**Si es hija, entonces viva.**

**17. Pero las parteras temieron a Dios y no hicieron como les mandó el rey de Egipto, sino que preservaron la vida a los niños**

**18. Y el rey de Egipto hizo llamar a las parteras y les dijo ¿Por qué habéis hecho esto, que habéis preservado la vida de los niños?**

**19. Y las parteras respondieron a Faraón: Porque las mujeres hebreas no son como las egipcias, pues son robustas, y dan a luz antes que la partera venga a ellas.**

**20. Y Dios hizo bien a las parteras, y el pueblo se multiplicó y se fortaleció en gran manera.**

**21. Y por haber las parteras temido a Dios, él prosperó sus familias,**

**22. Entonces Faraón mandó a todo su pueblo, diciendo: Echad al río a todo hijo que nazca y a toda hija preservad la vida.**

Hoy/ con el tema de Moisés quien recibió protección, vamos a aprender unas lecciones en Éxodo capítulo 1, 2.

Aparece un niño, Moisés quien nació como líder, como ministro de Dios y el proceso de cómo le protegió Dios.

En la palabra que leemos, desde el versículo 15 hasta 22, aparecen los nombres de 2 mujeres.

그 여인의 이름이 십브라 그리고 부아 라는 히브리 산파입니다.

왜 이 두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있을까.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면요, 1.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

그랬습니다.

반가로 1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했습니다.

십육절에 보면, 유인물에 보면.

**16.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라고 했습니다.

어, 절대 왕권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가 애굽 왕이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죽여야 되는데 그 남자를 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를 살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바로 왕보다 두려워 하였음으로

사내 아이를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집안이 왕성하게 되었죠

Se llaman Sifra y Fúa, eran las parteras de las hebreas

¿Por qué están escritos sus nombres en la biblia?

Y en el versículo 21, ellas recibieron una gran bendición de Dios, ¿Por qué? Vamos a averiguarlo en un momento.

Si vemos en este impreso.

Aquí dice que: Sifra y Fúa, las parteras, temieron a Dios

Dice que:

Cuando se vive temiendo a Dios, Dios es responsable de toda su vida.

En el versículo 16 del impreso

**16. Cuando asistáis a las hebreas en sus partos, y veáis el sexo, si es hijo, matadlo. Si es hija, entonces viva.**

**17. Pero las parteras temieron a Dios y no hicieron como les mandó el rey de Egipto, sino que preservaron la vida a los niños**

Eh, Faraón, el rey de Egipto que tenía gran autoridad, mandó que mataran. Tenían que matarlos, pero preservaron la vida de los niños, de Israel,

¿Cuál fue la razón principal? Dice que temieron a Dios

Así que leyendo esto, podemos darnos cuenta de que, / las parteras de las hebreas, Sifra y Fúa, preservaron la vida a los niños de Israel, ya que temieron a Dios más que al Faraón, el rey.

Así que recibieron la bendición de Dios

y él prosperó sus familias,

그런 위기 가운데

바른 가치관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11편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시편을 ,

일단 여기 잡아놓고 시편 34편 잠깐 보겠습니다.

34편 7절 .34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 죽지 않았죠?

En tales crisis,

La principal razón por la que tomaron la decisión correcta y tuvieron los valores correctos fue...

/Porque temieron A Dios.

Es decir, porque valoraron mayormente a Dios.

(Apreciar-respetar-honorar-valorar)

Por eso, el Temor a Dios......Es la base de nuestra vida cristiana.

Así podemos recibir la lección por la enseñanza de hoy

Vamos a leer juntos Salmos 111:5

**: Ha dado alimento a los que le temen: Para siempre se acordará de su pacto**

Ha dado alimento a los que le temen...

Eso es que Dios tiene a cargo a los que le temen.

(Dios les sostiene a los que le temen)

Vamos a mantenernos aquí y observemos el Salmos capítulo 34 por un momento.

Salmos 34:7

Yo leo

**El ángel de Jehová acampa alrededor de los que le temen, Y los defiende.**

Versículo 9, leamos juntos.

**Temed a Jehová, vosotros sus santos, pues nada falta a los que le temen**

Dice que nada falta a los que le temen.

Sin falta Dios les guarda y cuida.

Asimismo: Sifra y Fúa, las parteras hebreas. Puesto que estaban viviendo con temor a Dios, no hicieron como les mandó el rey de Egipto,

pero no murieron.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집안의 큰 왕성케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 근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피할 길이 있으며

더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있다.

즉 이런거죠

왕이 부르지 않습니까? 왜 살렸냐?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두려움을 갖고 왕 앞에 딱 섰을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 산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여기 잠깐 보시죠.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에, 18절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19절

**19.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지금 무슨얘기냐 하면 ,

이 애굽 왕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땠다는 겁니까?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Y Dios les dio la gracia y prosperó sus familias

En el fondo de esto, había el temor a Dios.

Y el número 2.

Para los que le temen, hay salida y mayor gloria.

Es decir.

Les llamaría el Faraón, ¿no?

¿Por qué habéis preservado la vida de los niños?

Pues esas parteras hebreas estaban delante del Rey con miedo, ¿no?

¿No? Sin embargo, Sorprendentemente,

Esas parteras hebreas dijeron así.

Vamos a ver Éxodo.

1:19.

1: 19, 18-19 yo leo.

**18. Y el rey de Egipto hizo llamar a las parteras y les dijo ¿Por qué habéis hecho esto, que habéis preservado la vida de los niños?**

**19. Y las parteras respondieron a Faraón, Porque las mujeres hebreas no son como las egipcias, pues son robustas, y dan a luz antes que la partera venga a ella**

¿Qué significa?

Cuando oyó el rey de Egipto sus dichos, ¿cómo reaccionó?

Él estuvo de acuerdo.

Ah Claro. Así que esas 2 mujeres pudieron sobrevivir.

그래서 이게 히브리.. 유인물에 보시면 히브리 산파들은 신과 같은 바로의 명을 어기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므로,

하나님이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게 해주시고 또 죽음을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시편 25편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그랬죠. 피할길을 주신다 라는 겁니다.

이 십브라와 부아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축복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예 읽어보겠습니다.

**1.레위 족속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2.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을 숨겼더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Por eso, eso es, al ver el impreso,

Aunque las parteras hebreas tuvieron miedo de la muerte si no hicieron como les mandó el Faraón,

(Puesto que) Escogieron el camino de obedecer a la palabra de Dios, Dios las ayudó para que respondieren convincentemente y no solo escaparon de la muerte sino que, recibieron la bendición de Dios.

Pues vamos a leer Salmos 25:12

**¿Quién es el hombre que teme a Jehová? Él le enseñará el camino que ha de escoger.**

Dice que enseñará el camino de ha de escoger. ¿No? Es decir, dará la salida.

Sifra y Fúa fueron así.

Por eso, ¿Cuál es el mayor núcleo en la vida cristiana? Es temer a Dios, tener miedo de Dios.

Hemos visto cuan gran bendición según esto a través del contexto

Y vamos a ver Éxodo capítulo 2.

Capítulo 2:1, vamos a leer.

1. **Un varón de la familia de Leví fue y tomó por mujer a una hija de Leví,**
2. **La que concibió, y dio a luz un hijo: y viéndole que era hermoso, le tuvo escondido tres meses.**

Leamos juntos versículo 3

1. **Pero no pudiendo ocultarle más tiempo, tomó una arquilla de juncos y la calafateó con asfalto y brea, y colocó en ella al niño y lo puso en un carrizal a la orilla del río.**

어 석달동안 이 요게벳이 어머니었던 이 요게벳과 아므람. 아 모세의 아버지였죠 ?

이 아기가 모세를 어쩔수 없이 이제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갈대 상자의 이 모세를 집어 넣고 이 강에다가 버립니다.

그런데 버리기 전에 갈대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방수하기 위해서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것처럼 이 유인물에 보시면 이런게 있죠. ?

2번에 굵은 체로 된 것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갈대 사이에 두면 물이 스며들어와서 결국 죽을 것이므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다.

이런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당연히 행하는 것들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히 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

밑에 굵은 체 보시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 나름대로 위험을 보면 대책을 세운다.

만일 눈에 보이는 명백한 위험을 보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른 정신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Por 3 meses, Jocabed, su madre, y Amram quien fue el padre

Cuando tuvieron que botar al bebé, Moisés, inevitablemente,

En esa situación lo pusieron en una arquilla de juncos y lo puso en el río.

Pero antes de botarlo, para que no entre el agua dentro de la arquilla, la calafateó con asfalto y brea.

Para impermeabilizar, ¿no?

Es lógico. ¿No?

Asimismo, si vemos en el impreso,

Número 2, la letra gruesa, voy a leer

Colocó al niño en la arquilla de juncos e iba a morir, si lo pusiere en un carrizal a la orilla del río. Así que la calafateó con asfalto y brea.

Estos hechos son muy naturales y muy lógicos.

Nosotros,

Las cosas lógicas del mundo, en la vida cristiana en muchos casos no son lógicas.

Si vemos la letra gruesa,

En este mundo, cualquier persona quien tenga fe o no, cuando están en urgencia, crisis,

Toman medidas (necesarias)

Si miran los peligros obvios,

y no toman las medidas, es difícil pensar que tenga la mente correcta.

당연한거죠 . 그런것처럼. 반가로 1번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에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해야된다.

즉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같이 한번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죠

이게 마음이면 마음이라는 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라는 성에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게

뭐냐,

예를 들어서 성에는 성벽이라는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게 뭐냐면

바로 뭡니까 이 귀하고 눈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왜 뺏기냐

귀와 눈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핵심입니다.

Es Cierto. Asimismo, en el número 1

Después de recibir la salvación, a nuestro corazón, tenemos que impermeabilizarlo para no dejar entrar el agua del mundo.

Es decir, es lógico (impermeabilizarlo) para que no entren las cosas mundanas a nuestro corazón.

Entonces, En proverbios 4:23 vamos a leer juntos

**Sobre toda cosa guardada, guarda tu corazón, Porque de él mana la vida.**

Dice que hay que guardar el corazón. ¿no?

Aquí hay una cosa

Por ejemplo, nosotros, decimos el corazón.

es el corazón, es mi corazón.

Si el corazón fuera un castillo, en ese castillo, ¿qué funciona como muro? ¿Cuál sería el muro de este castillo?

Por ejemplo, en el castillo hay un muro. ¿No?

Para no entrar las cosas mundanas a ese corazón, ¿qué funcionan como el muro?

¿Qué son? Son las orejas y los ojos.

¿Por qué se distrae nuestro corazón?

Por no poder controlar las orejas y los ojos.

Es el núcleo.

그래서 잠언 4장에 보시면요, 잠언 4장을 잠깐 보시죠.

4장 여기 23절을 좀전에 읽었죠. 26절에 보면,

**26.네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에 보시면요,

마음을 지키는데 왜 중요하냐, 마음은 뭐하고 관렸있냐, 행동과 관련있어요

행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신앙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위해서는 반드시중요한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눈과 귀를 통제하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20.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1.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랬죠?그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 마음을 딱 지킬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행동이 딱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과 귀를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일이 반드시 일어나냐

Por eso, si vemos Proverbios capítulo 4,

Vamos a ver Proverbios 4

Cap4. Hemos leído 23, ¿no? Si ven versículo 26

**-26. Examina la senda de tus pies, y todos tus caminos sean rectos.**

**-27. No te desvíes a la derecha ni a la izquierda: Aparta tu pie del mal**

Si vemos aquí

¿Por qué es importante guardar el corazón?

¿Con qué tiene que ver?

El corazón está relacionado con la acción.

Tiene que ver con el comportamiento.

Por lo cual, para vivir correctamente en la fe, (vida cristiana), ¿qué es tan importante?, es guardar el corazón.

Y ¿Qué se necesita para guardarlo?

controlar los ojos y las orejas.

En el versículo 20 hay estas palabras, vamos a leer juntos. Versículo 20, 21 vamos.

**-20. Hijo mío, está atento a mis palabras: inclina tu oído a mis razones.**

**-21. No se aparten de tus ojos: Guárdalas en medio de tu corazón**

Es decir, por escuchar la palabra de Dios, por leerla, por aprenderla, se puede guardar el corazón.

Es cierto, ¿No?, Así las acciones se cambian.

Pero si no controlara los ojos y las orejas para guardar el corazón, ¿qué sucederá?

여호수아에 보면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잖아요,

근데 패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에서 바쳐진 물건을 훔치게 되잖아요

근데 훔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고, 보고, 처음에 보고 거든요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 아간도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취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취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에도 왜 ,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초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왜 취했냐.

이유가 뭐예요. 보고 . 이것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음이 빼앗깁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게 뭐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눈과 귀를 통제하는 거예요

En Josué, en el Hai el pueblo de Israel fue derrotado. ¿no?

Pero ¿quién fue la razón principal de la derrota?

Por un varón llamado Acán

Porque Acán tomó(hurtó) las cosas entre despojos consagrados a Jehová en Jericó

Pero el proceso del hurto, sale así.

*VI*, él vio. Al principio él vio.

***codicié y tomé***

Este Acán.... sabía que Si tomara algunas cosas en Jericó, recibiría anatema como Josue 6.

Sin embargo, las tomó. -Hurtó las cosas consagradas a Jehová.

Aunque había experimentado la maravilla de Dios...

Jericó se destruyó de modo sobrenatural.

Pero ¿Por qué él las tomó?

¿ Por qué? *Vi*. Por esto.

Entonces, nosotros viviendo en este mundo,

Si no controlamos, lo que vemos y escuchamos, ¿qué problema sucederá?

Se distrae el corazón

¿Qué es lo más importante en la vida cristiana?

Controlar los ojos y las orejas para que no se distraiga / y se cautive el corazón.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에 ,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제 아들이 엇그저께 엄마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집 전화기 070. 근데 왜 잃어버렸냐면, 이제 엄마한테 갖다 준다고 태권도 복에다가 그냥 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엄마가 어딜갔는데 거길 따라가가지고요 엄마 내가 핸드폰 갖다 줄께요 해서 간거예요

가다가 그냥 엄마보고 너 왜왔니 그 얘기듣고 그냥 집에 왔어 왔는데 중요한건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

제가요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얘기 딱 듣는 순간에. 화가 엄청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저희 자매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냐면 이제 갑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엄마한테 핸드폰 갖다줄려고 했던 좋은 마음에서 한거지, 잃어버릴려고 잃어버린게 아니잖아요

다행이도 찾았어요.

제가 교무실가가지고 , 학교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말씀이 잠깐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Y También vamos a ver Efesios. Efesios capítulo 4

Efesios 4: 26 a 27

Vamos a leer juntos

**26. Airaos, pero no pequéis: no se ponga el sol sobre vuestro enojo,**

**27. Ni deis lugar al diablo.**

Mi hijo, hace dos o tres días, perdió el móvil de su mamá

No solo eso, también el teléfono de casa. -Pero ¿Por qué los perdió? Él se los iba a dar a su mamá, así que los metió en el traje de Taekwondo.

Y se fue en bicicleta a dónde estaba su mamá.

Le siguió a su mamá para darle el móvil.

Pero en el camino, encontró a su mamá y ella le dijo ¿Por qué vienes? Así que volvió a casa. Pero el móvil se desapareció.

Yo.. En cuanto escuché que él perdió el móvil, me dio mucho coraje.

Por instinto

Pero mi esposa mirando a mí....

Yo... lo que pasa es que... Después de escuchar toda historia, él tenía la buena intención que era pasárselo a su mamá. No iba a perderlo.

Afortunadamente lo buscó

Yo busqué en la oficina de la escuela

Pero mirando todo el suceso,

Me di cuenta de esa palabra.

Como esta escrita.

**Airaos, pero no pequéis**

분을 낼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죄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할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질때까지 이 분을 품지 말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것처럼 이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거죠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죄를 짓게 됬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담은 인정 때문에. 그죠 ? 인정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넘어뜨린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아담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또 낙담. 그니까, 염려와 낙담이 쌓이면 마귀가 역사할 틈이 생겨서 그 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 사무엘상 12장을 잠깐 보죠

사무엘상 12장에, 12장 20절입니다.

1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 .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한 말씀이죠.

지금 여기보면은,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했을때 여기 악을 얘기하죠. 죄를 얘기하죠.

Se puede airar. ¿no? Pero convertirse eso en una acción, eso es el pecado

Y como está escrita aquí: No se ponga el sol sobre vuestro enojo, Ni deis lugar al diablo

¿Por qué? Porque aprovechándose de ese momento, el diablo puede hacer la obra, /así que no se ponga el sol sobre vuestro enojo.

Del mismo modo, prepararse perfectamente de antemano para que no dar lugar al diablo es muy importante.

/Aquí número 1. Eva, puesto que entendía inciertamente la palabra de Dios, dio lugar al diablo y cometió el pecado. ¿no?

Y Adán. Por la humanidad. Por la humanidad, dio lugar al diablo, Este es el caso representativo de lo que el diablo hizo para caer.

Y siguiente número 3. Es el desánimo

Si se acumulan la ansiedad y la decepción, /el diablo tendrá la oportunidad de poder obrar. /Y se caen muchos por esa oportunidad. ¿no?

Vamos a ver 1 Samuel capítulo 12.

1.Samuel 12: 20 Vamos a leer juntos.

**1Samuel 12:20 Y Samuel respondió al pueblo: No temáis: vosotros habéis hecho todo este mal: pero con todo eso no os apartéis de en pos de Jehová, sino servidle con todo vuestro corazón.**

Fue el dicho de Samuel al pueblo de Israel.

Si vemos aquí, dijo que ¨habéis hecho todo este mal... mencionó este mal. Es decir, el pecado.

이 죄가 뭡니까, 이 악이 뭐죠

왕을 세운 일을, 이게 죄였잖아요

근데 또하나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좇는데서 돌이키지 말고 ,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왕을 만든 것보다 더 큰죄가 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더 결정적인 큰 죄라는 거거든요 ?

비록 너희가 왕을 섬겼지만 여호와를 돌이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죄는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순 있어요. 세상 살다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일수 있죠. 염려가 될수도 있고, 걱정거리 때문에 넘어질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작은 죄예요. 뭐에 대해서 .

섬기는 것에 대해서 .

그니까 연약하니까 어떻게든지 교제에 나와야지, 교회에 거해야지

교제에 섞이지 않고 교회를 안나오는 것은 더 큰 죄고 하나님 보실 때 결정적인 죄라는 거예요 , 아셨어요?

그니까 우리가요 이런게 있어요.

이게 염려가 딱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요, 여기 나와있는것처럼 제가 쓴것처럼 막 심각한 문제인것 처럼 생각을 해요.

¿Cuál fue ese pecado? ¿Cuál es ese mal?

levantar el rey. Ese fue el pecado

Pero está diciendo una cosa más. ¿Qué?

*No os apartéis de en pos de Jehová, servidle a Dios*

Entonces, ¿Cuál es el mayor pecado que levantar al rey? Eso es.

Es decir, eso es el pecado principal

A pesar de que sirvieron al rey, no cometáis el pecado de apartarse en servir a Dios.

Así está diciendo.

Hay una cosa. Nosotros podríamos caernos.

Viviendo en el mundo.

Podría ser por varios tipos. Puede ser una por ansiedad, y puede caerse debido a las preocupaciones.

Pero el problema es...

es el pecado pequeño, ¿De qué?

De servir.

Porque somos débiles, de tal manera tenemos que venir a la reunión y tenemos que morar en la iglesia.

El no mezclarse en la reunión y apartarse de la iglesia son mayor pecado y pecado definido

Del lado de Dios. ¿Lo entendéis?

Pues para nosotros... eso es.

¿Y si las ansiedades aparecieren?, Pues en verdad no es nada. /Pero como está escrito aquí(impreso).

Piensan como si fuera tan serio.

그러면서 교회를 안나와. 교제를 기피해

별거아니거든 인생살다 보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참 많더라고.

제가 천로역정을 읽다가 이 기독도가 자기가 죽여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는 죽겠다. 왜그러냐면 절망 거인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아 그래서 아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게 뭐냐, 낙담 좌절 걱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 경험적으로도 그것을 체험을 해봤는데 .

그래서 그런 낙담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된다. 그리고 욕심이죠

가롯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틈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 명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성을 좋아하면 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틈을 냅니다.

돈이면 돈으로. 가롯유다는 돈으로 망했잖아요

그리고 분냄이 지속될때, 그리고 분방, 미움.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타서 사람에게 역사할수 있죠?

Y no vienen a la iglesia. Evitan las reuniones.

De hecho, no es nada en la vida.

Pero en muchos casos hacen así.

Yo, leyendo ¨El PROGRESO DEL PEREGRINO¨, este cristiano (protagonista) dijo que me mate...

Dijo que voy a morir. Porque fue llevado al calabozo por un gigante llamado Desesperación.

Pues, Ah... eso es. ¿Qué es lo más terrible en la vida cristiana? /Es el desaliento, desánimo y la Ansiedad.

Medité mucho y yo también he experimentado eso.

Así que hay que tener cuidado con estas ansiedades. Y la Codicia.

Judas Iscariote. Por la codicia del dinero, dio lugar al diablo para obrar ¿no?

Y mujer/hombre y honra.

El diablo no conoce nuestro corazón.

Pero sabe los hechos que hemos realizado hasta ahora. ¿no?

Por lo cual, sabe bien lo que le gusta a una persona.

Entonces, si le gusta mujer/hombre, sigue haciendo un hueco con esto.

El dinero es dinero. Judas fracasó por el dinero

Y cuando tenga continuo coraje. Y aborrecimiento. Pues cuando tenga aborrecimiento, el diablo podrá obrar en esa oportunidad.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바로 이제 가인이지 않습니까 ?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를 , 대비를 해야되겠다라는 것을 또 두 번째로 교훈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을 잠깐보죠. 2장에 보시면요,

2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5.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7.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8.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9.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삯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됬습니다.

이제 이 본문내용을 보면, 이제는 죽을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처해 있었던 이 모세를 누나였던 이 미리암이(María)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갔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제가 3가지만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El caso representativo fue Caín, ¿no?

Por aborrecimiento, él mató a su hermano con una piedra.

Entonces para que no demos lugar al diablo, tenemos que prevenir ante mano. Así podemos recibir la segunda lección.

Y vamos a ver Éxodo capítulo 2.

Éxodo capítulo 2: de 4 a 9 leamos juntos

**4 - Y una hermana suya se puso a lo lejos, para ver lo que le acontecería**

**5 - Y la hija de Faraón descendió a lavarse al río, y paseándose sus doncellas por la ribera del río, vio ella la arquilla en el carrizal, y envió una criada suya a que la tomase**

**6 - Y cuando la abrió, vio al niño: y he aquí que el niño lloraba, Y teniendo compasión de él, dijo: De los niños de los hebreos es éste.**

**7- Entonces su hermana dijo a la hija de Faraón: ¿Iré a llamarte una nodriza de las hebreas, para que te críe este niño?**

**8 - Y la hija de Faraón respondió: Ve. Entonces fue la doncella, y llamó a la madre del niño.**

**9 - a la cual dijo a la hija de Faraón: lleva a este niño y críamelo, y yo te lo pagaré. Y la mujer tomó al niño y lo crió.**

Si vemos el contexto,

Este Moisés quien había de morir,

pero su hermana María le salvó.

Ella fue una herramienta utilizada por Dios.

¿Cómo? He anotado estas 3 razones.

여기 보니까 유인물에 보시면 굵은채로요, 미리암은 하숫가 갈대사이 상자속에 있는 모세의 운명에 대해서 눈을 뗄수가 없었다.

모세 어머니의 당부도 있었을 것이며 미리암 자신의 관심도 있었을 것이다.

미리암의 마음은 온통 자신의 동생의 운명에 가 있었다.

당연하죠.

동생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굵은 채로 ,

미리암이 위기에 처한 동생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것 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쏟는 것이 있을 것이며 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는가 .

반가로 1번에 미리암의 마음은 모세에게 가 있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않습니까?

그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미리암은 자기의 동생이 삼개월이나 자기와 같이 있었고, 동생의 운명에 관심이 있었다.

다른 아기의 운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당연하죠

특별히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모세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미리암은 멀리서서 아이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도 미리암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En el impreso, letra gruesa.

María no podía apartar los ojos del destino de Moisés que estuvo en la arquilla de juncos en un carrizal a la orilla del río.

Habría el mando de mama, pero también tenía el interés sí misma.

El corazón de María totalmente se inclinaba al destino de su hermano.

Es cierto.

Porque supo bien qué destino tenía su hermano.

Si vemos abajo, con la letra gruesa

Igual que el corazón de María que estuvo con su hermano que estaba en peligro...

En nuestra vida cristiana también habrá algunas cosas en las que tengamos que fijar nuestros ojos.

¿Dónde está nuestro corazón?

1. El corazón de María estaba hacia Moisés.

Es el corazón del Cristo. ¿No?

Yo voy a leer el texto

María estuvo con su hermano por 3 meses y tuvo interés en el destino de su hermano

También supo muy bien sobre el destino de los demás bebes. Claro.

Especialmente.. para Moisés que estaba en peligro de muerte, con profunda preocupación, estaba orando por él.

Así que ella se puso a los lejos al destino del bebe

Nosotros debemos aprender el corazón de María.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둘째사망, 지옥을 당하게 될 지옥을 갈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있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대하여 참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가.

미리암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과 일치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미리암이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 잠언 24장 11절 ,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1.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12.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가족과 지인들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처해있는데 , 가만히 있을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영혼에 가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지키는 쪽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앙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세상에서는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는것이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4장 23절부터 35절 내용을 보면, 32절부터 35절 내용을 보면.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게아시가 첫 번째 가서 살리지 못했는데, 사실 조건이 딱 3가지입니다.

La muerte segunda, es la más terrible que la muerte del cuerpo.

La familia y los vecinos están destinados a ese destino de ir al infierno.

¿Realmente estamos expresando la preocupación por ellos?

El corazón de María coincidió con el de su mama. - Sin embargo, Nosotros, ¿Estamos haciendo lo mejor con el corazón de Cristo para librar a ellos como hizo María?

Leamos juntos Proverbios 24:11, 12

-**Proverbios 24:11 Libra a los que son llevados a la muerte: Salva a los que están en peligro de muerte**

**-12 Porque si dijeres: Ciertamente no lo supimos,¿Acaso no lo entenderá el que pesa los corazones?**

**El que mira por tu alma, él lo conocerá,**

**Y dará al hombre según sus obras.**

Las almas de mi familia y de mis conocidos están destinadas a destino eterno, ¿Podemos quedarnos quietos?

Si nuestro corazón no está en la alma, eso es la fe incorrecta.(equivocada)

Tenemos que inclinarse a Guardar las almas. Eso es la base de la fe y de la vida cristiana. En el mundo, no hay nada más precioso que una alma.

Así que si vemos en 2Reyes 4:23 a 35.

En el versículo de 32 a 35

Eliseo salvó al hijo de la Sunamita.

Cuando fue Giezi, él no pudo salvarle.

Había 3 condiciones.

엘리사가 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딱 3가지인데 ,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엘리사는 어때요, 이 아이를, 수넴여인의 아들을 살릴수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잖아요

이 중요한게 기도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해서 안나으니까 또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그니까 인내와 끈기가 또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게 있었죠, 그게뭐냐.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이 아이를 어떤일이 있어도 살려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때 ,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가르칠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수 있다는 거죠 ?

Tres razones por las cuales Eliseo pudo salvarle. En cuanto lo vi, me di cuenta 3 cosas son importantes en la fe para librar y levantar una alma.

Lo primero es. ¿Cómo es Eliseo? Puesto que él supo ciertamente que el único que puede salvar a ese hijo es Dios, primeramente oró a Dios.

Lo importante es la oración.

Y el Segundo. Por primera vez, no funcionó. Pues volvió hacer de Nuevo.

es necesario tener la paciencia y la constancia.

No abandonar

Y el tercero. Lo más importante. ¿Cuál era?

Como la madre, él tenía el corazón de Dios.

Tenía un corazón de compadecer sinceramente, tenía misericordia que de tal manera iba a salvar a ese niño. Ese corazón él tenía.

Como tuvo estas tres cosas, pudo salvarle

Entonces vamos a leer juntos 1Corintios 2 :16

Porque ¿quién conoció la mente del Señor? ¿Quién le instruirá? Mas nosotros tenemos la mente de Cristo (1Co 2:16)

Cuando tengamos la mente de Cristo, tengamos la misericordia de esa alma

Podremos instruir sobre Cristo y podremos predicar

제가 어제 그제군요, 그제 이제 양화진을 갔다왔거든요

양화진을 한 5번 갔다왔어요.

자매님들 조모임때 안가신분들이 참 많아서, 근데 갈때마다 새로움이 느껴서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너무 많이 가니까 아무생각안할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언더우드에 대해서 어떤 한 자매님이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나와있는 것처럼 이 언더우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57세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기도를 조선에 와가지고 했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않습니다.*

*주님 매마르고 가난한땅, 나무 한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Yo ayer, no ante ayer fui a Yanghwajin(El cementerio de misioneros extranjeros en Corea)

A Yanghwajin he ido unas 5 veces.

Porque en la reunión muchas hermanos aun no habían ido allí… cada vez que visito allí, puedo renovar. Eso también es la gracia

¿Por qué? Por visitar varias veces, podía no pensar nada.

Personalmente he recibido muchas enseñanzas. Pero en este momento un hermano contó sobre Underwood

De cómo está escrita la oración de Underwood.

Yo voy a leerlo.

Ese misionero vino a Corea por primera vez y falleció a la edad de 57 años.

Cuando llegó a Joseon (El nombre antiguo de Corea), él oró así.

*“Señor, no se ve nada ahora.*

*“Señor, tú nos has plantado en esta tierra estéril y pobre, donde ni un árbol puede crecer suficientemente (en abundancia).*

*“Es el milagro cómo podamos llegar a esta tierra cruzando Océano Pacífico tan ancho.*

*“En esta tierra en la que parece que nos la has dejado caer de la mano*

*“Ahora no se ve nada.*

*“Solamente se ve la oscuridad manchada obstinadamente.*

*“Solamente se ven las coreanas encadenadas a la pobreza y la superstición.*

*“Ellos no saben por qué están encadenados y Ni siquiera qué es el sufrimiento.*

*“Cuando les decimos quitaremos el sufrimiento a los que no lo saben (el sufrimiento),*

*“Simplemente desconfían (de nosotros) y nos dan (expresan) el coraje.*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는 날이 있을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수 있게 될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있는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에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들일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 근데 이걸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요,

참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No se ven los pensamientos (intenciones) de los hombres coreanos.*

*“No se ve la mente de este gobierno.*

*“Acaso no tengamos más oportunidades de ver a las mujeres coreanas que están en Kama (un carro llevado por hombres).*

*“No se ve el corazón del Joseon.*

*“No se ve lo que tenemos que hacer.*

*“Pero Señor Sí obedezco.*

*“Creo que comienzas tu obra al obedecer humildemente,* *Y que llegará el día en que nuestros ojos espirituales verán tu obra.*

*“Como la palabra que* ***la fe la certeza de lo que se espera, la convicción de lo que no se ve,*** *Creo que veré el futuro de la fe de Corea.*

*“Aunque ahora estamos como si estuviéramos en un desierto con las manos desnudas,*

*“Aunque estamos condenados a ser demonios occidentales,*

*“Creemos que llegará el día en que se regocijarán con lágrimas al entender que somos uno en Cristo y que tenemos un Padre en el cielo.*

*“Aunque ahora no hay iglesia (para servirte), ni la escuela,*

*“Aunque (esta tierra) está llena de dudas, sospechas y menosprecios, y maltratos.*

*“Creemos que dentro de poco (pronto) esta tierra se convertirá en una tierra de bendición*

*“Solamente ayúdame señor para sostener mi fe*

Lo he visto una vez por un video

Me emocionó tanto.

Pero esto es el corazón de Cristo.

제가 여기 예로 94살되신 할머니가 이제 구원받고 되게 즐거워했던 모습을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옆에 두 명의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는게 뭐냐면 두 명의 조카가 다 직장을 다니고 한 명은 애가 두 명입니다.

근데요 자기 할머니,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를 글도 모르는 할머니를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할려고요, 몇일 동안 계속 데려오더라고요 상담을 시켜서 .

저희들을 참 귀찮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 딱 보고 오히려 제가 감동이 딱 되더라고요

그 마음 있잖아요, 할머니 애기가 옆에 뒤에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할머니를 구원 시키려고 하는 마음있잖아요?

그런 것에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 끝내는 복음 말씀 듣고 이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딱 봤는데, 그런 마음이 이 미리암에게 엄마와 같은 마음.

그래서 어땟냐, 여기 두 번째 보면, 딴 짓을 하지 않았죠

미리암이 어린 나이였지만 모세 운명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모세가 어떤지 한번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미리암이 만일 자기 동생이 갈대사이에 있는데 두고 놀러갔을 때 공주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할 뻔 하였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마음과 눈을 항상 두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일에 빠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잃어진다.

Por ejemplo, una vez he visto que

Una abuela de 94 años se gozaba mucho por haber sido salvo (salvado). -- En aquel momento estaban 2 sobrinos juntos a ella.

Pero esa abuela fue iletrada. No sabía leer. Pero lo que me emocionó fue…. Los 2 sobrinos.

Ambos trabajan y uno tenía 2 hijos.

Pero para su abuela, no su mamá, sino su abuela, abuela analfabética. Para salvar a su abuela, de todas maneras, le llevaron para consultar.

Nos molestaron bastantísimo.

Pero yo mirando eso, más me emocionó.

Ese corazón es… Aun su bebe lloraba detrás pero sin abandonar de ninguna manera

Hicieron esfuerzo para librar a su abuela. Ese corazón.

Me conmovió así de tal manera

Entonces, al ver que estaba feliz por escuchar el evangelio por fin…

Ese corazón también tenía María. El Corazón como mamá.

Entonces, ¿como hizo? Si vemos el Segundo.

No hizo otra cosa

-Aun María era una niña (Joven),

Sabía muy bien sobre el destino de Moisés

Así que no salió de ese lugar

Siguió mirando a Moisés hasta el fin

Aquí, abajo, Si la princesa apareciere en las cañas cuando María fuese a jugar dejando a su hermano, ¿Qué sucedería? ¿Qué podría-hacer?

Pero, desafortunadamente porque los cristianos no mantienen sus corazones y ojos siempre en sus familias y hermanos, -sino en su propio trabajo de la carne- muchas personas están perdidas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미리암은 자기의 위치에 있었다.

지켜보는 파수하는 위치에 있었다.

나의 위치는 바른가. 나는 바르게 파수하는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인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있는가. 딴데 정신이 팔려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장난하고 있는가.

우리가 육신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일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영혼이 잃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됩니다.

여기 사무엘하 여기 찾아보죠. 사무엘하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찾아보겠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중에 한명이 나오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나왔죠,

**11.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 가운데 서서 뭐라고요? 막아.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처들어오면 도망가는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끝까지 위치를 지키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여기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막았다는 말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위치를 지켰더니 놀랍게도 이 블레셋사람을 이길수 있었잖아요

En el segundo párrafo debajo, María estaba en su posición.

Estaba en la posición de atalayar(Vigilar)

Y ¿Mi posición es correcta? ¿Estoy en la posición de atalayador correctamente?

Somos los vigilantes de alma

¿Cuántas personas están haciendo otra cosa- sin prestar atención?

¿Cuantas personas están jugando con el pecado?

Tenemos que saber que muchas almas están perdidas, ya que buscamos lo de la carne, no lo que es del Cristo Jesús.

Vamos a buscar 2Samuel. 2 Samuel 23:11

Vamos a buscar 2Samuel.

23 : 11 sale un varón de los valientes de David, el versículo 11

**2Sa 23:11Después de éste fue Sama hijo de Age, ararita. Los filisteos se habían reunido en Lehi, donde había un pequeño terreno lleno de lentejas, y el pueblo había huido delante de los filisteos.**

**2Sa 23:12 El entonces se paró en medio de aquel terreno y lo defendió, y mató a los filisteos; y Jehová dio una gran victoria.**

Se paró en medio y ¿qué? Defendió--

Era lógico huir cuando los filisteos se habían reunido. ¿no?

Es lógico. Pero hasta el fin él guardó su posición.

No huyó, defendiendo hasta el fin.

Se paró en medio de aquel terreno y lo defendió

Eso significa que guardó su posición mientras podría morir.

Y al final, sorprendentemente pudo vencer a los filisteos.

하나님이 큰 역사를,구원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지켜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본분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잃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의 본분과 역할이 뭔가. 사도행전 4장 여기 잠깐 보죠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분과 역할, 이걸 절대로 잊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딴 짓을 않고 끝까지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어땠어요, 공주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다시 2장으로 돌아가보시면, 2장 ,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7.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 8.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여기 보시면 위치를 딱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의딸이 목욕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그리고 이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봤더니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갑자기 7절에 보면은 누이가 그 공주에게 딱 가서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라고 갑자기 가잖아요?

Dios hizo una gran obra, la salvación. ¿no?

Pero nosotros también tenemos la posición de que tenemos que guardarlo, el deber, el papel

Pero puesto que lo olvidamos tan fácilmente, muchas personas se están perdiendo. Pensamos eso

Pues ¿Cuál es nuestro deber y papel? Hechos 4, vamos a ver.

Leamos juntos 4:20

**Hch 4:20 porque no podemos dejar de decir lo que hemos visto y oído.**

Sí

Nuestro deber y papel. Ojala no lo olvidemos. Y deseo que no olvidemos ya que esa es nuestra posición espiritual.

Por eso, como María guardó su posición sin distraerse, por fin se encontró con la princesa.

Si volvemos al Éxodo 2. Éxodo 2

2:7 yo leo

**7- Entonces su hermana dijo a la hija de Faraón :¿Iré a llamarte una nodriza de las hebreas, para que te críe este niño?**

**8 - Y la hija de Faraón respondió : Ve. Entonces fue la doncella, y llamó a la madre del niño.**

Aquí guardaba su posición, de repente llegó la hija de Faraón para lavarse Y cuando abrió la arquilla, en el interior había un niño que estaba llorando.

Y dijo que ¨de los niños de los hebreos es éste¨

Y en el versículo 7

Su hermana se acercó a la princesa y le dijo ¨¿iré a llamarte una nodriza de las hebreas para que te críe este niño?,

갑자기 가잖아요? 그랬더니 오 그래그래그래 데려와 그러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을 시키잖아요? 엄마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할때 , 그 믿음을 모세가 소유할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 여기 나와있는것처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담대하게 이제 딱 이 미리암이 뚜껑을 갈대상자 열어보자 마자 앞으로 딱 달려가지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불러 들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담대함이라는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그 8절 , 유인물에 보시면 , 반가로 3번에 미리암은 모세를 건지는데 용감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굵은 채로 공주가 올지 , 미리암은 몰랐었다. 그러나 미리암은 모세를 건지는 쪽으로 말하는데 용감하였다.

시기 적절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해야 할때 적절히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시기 적절한 말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리암의 이 말은 참으로 지혜롭고 힘있는 말이였다.

잠언 2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그런것처럼 자기의 동생을 건지는데 적극적이였고, 이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De repente se acercó, pues ella dijo, oh Sí, Ve llámale

Eso es una maravilla ¿no?

Así conectó con su mamá.

Por lo cual, este Moisés, en Hebreos 11 ¨Por la fe Moisés....¨. ¿Cuál es la razón principal por la que Moisés podía poseer la fe?

Por esto es. Como aquí está escrito.

Es decir.

Valientemente, En cuanto abrió la arquilla, María acudió (salió) adelante apresuradamente ¿no?

Y le dijo: ¿iré a llamarte una nodriza de las hebreas para que te críe este niño?,

Es decir hay que ser valiente.

En el versículo 8, Si vemos el impreso,

el numero 3) María era valiente en salvar a Moisés

Por eso, la letra gruesa, María no sabía que vinía la hija de Faraón. Sin embargo, ella fue valiente hasta le habló para salvar a Moisés.

Fue un momento apropiado.

Es muy importante hablar de manera apropiada cuando deberíamos hablar mientras vivimos.

Las palabras oportunas tienen un papel importante en determinar el destino de una persona.

Las palabras de Miriam (María) fueron verdaderamente sabias y poderosas.

Proverbios 25:11 leamos juntos

**Manzana de oro con figuras de plata**

**Es la palabra dicha como conviene.**

Asimismo, fue emprendedora en salvar a su hermano, y respondió de manera muy positiva.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적극적으로 건질 능력이 있는 분에게 간청하고 있는가

모세를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미리암처럼, 나는 주변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데 담대해야 한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여기, 유인물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중요한게 뭐냐, 담대함이라는 거죠

왜그러냐면, 핍박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핍박이 있고 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담대하라고 사도바울한테 얘기를 한거지 않습니까

그런것처럼 우리가 미리암을 통해서 배워야 될게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본분, 위치를 지키는거.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Ella) Respondió muy sabiamente.

Pues, yo..¿Estoy rogando ardientemente al señor que tiene el poder de salvar?

Al igual como María que hizo todo lo posible para librar a Moisés, ¿hago todo lo posible para librar las almas?

Debemos ser valientes en librar las almas

No debemos temer a la crítica

Pues el apóstol Pablo también, en Hechos 23:11

Hay en el impreso.

Leamos juntos.

**A la noche siguiente se le presentó el Señor y le dijo: Ten ánimo, Pablo, pues como has testificado de mí en Jerusalén, así es necesarios que testifiques también en Roma.**

¿Qué es lo más importante para predicar el evangelio? Es la audacia.

Porque hay las persecuciones

Aquí S.Mateo 5:11,12 vamos a leer juntos

**11-Bienaventurados sois cuando por mi causa os vituperen y os persigan, y digan toda clase de mal contra vosotros, mintiendo.**

**12 – Gozaos y alegraos, porque vuestro galardón es grande en los cielos, porque así persiguieron a los profetas que fueron antes de vosotros.**

Porque hay persecuciones y vituperaciones, por eso le dijo ¨Ten ánimo¨ al apóstol Pablo. ¿No?

Así que, hay tres cosas que debemos aprender a través de María.

Primero el corazón.

Segundo es nuestro deber. Guardar la posición

Y el tercero es la audacia que tuvo ella.

그랬더니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건져서 어머니한테 딱 인도를 하잖아요

그죠 .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미 구원 못받은 사람인데, 지금 이 미리암 같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

그래서 오늘은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 관련되서 잠깐 세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Por lo cual, habló una respuesta convincente.

Así que libró a Moisés y le guió a su mamá

Así es y mas como se convertió en una herramienta usada valiosamente por Dios. ¿No?

Es lo mismo también en levantar a nuestros estudiantes.

Y al alrededor de nosotros, la familia o parientes aun no son salvos.

Si no tuvieramos ese corazón como María... eso sería un problema. Así yo pienso

En mi opinión..

Por eso hoy hemos pensado sobre 3 cosas a través de Moisés quien recibió protección.